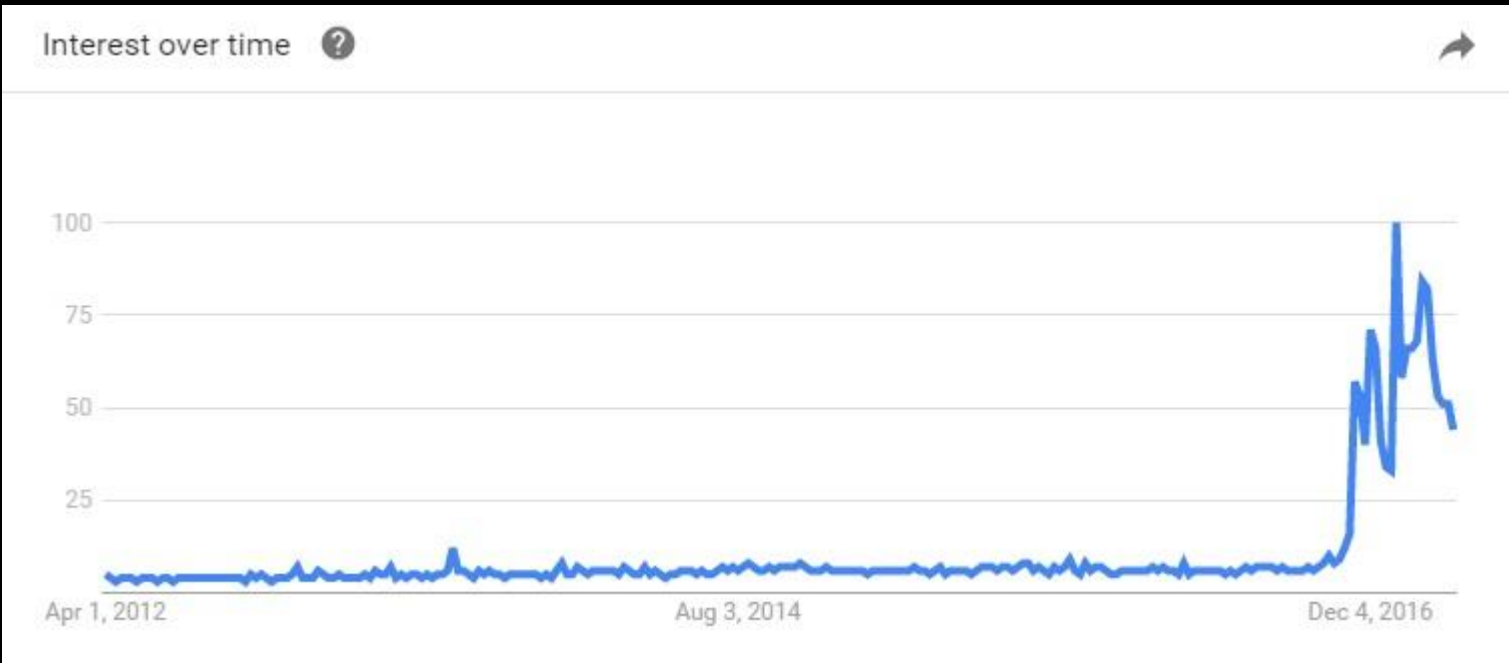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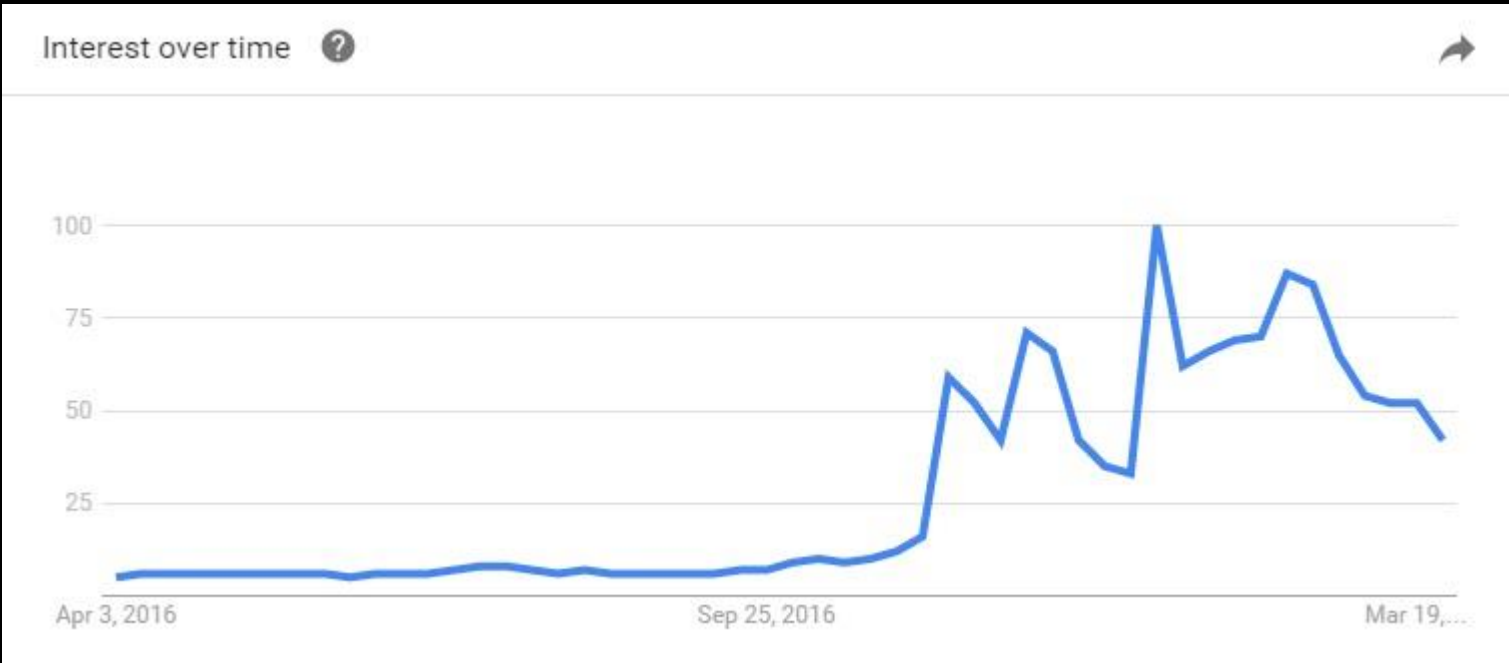
가짜 뉴스,
내가 니 애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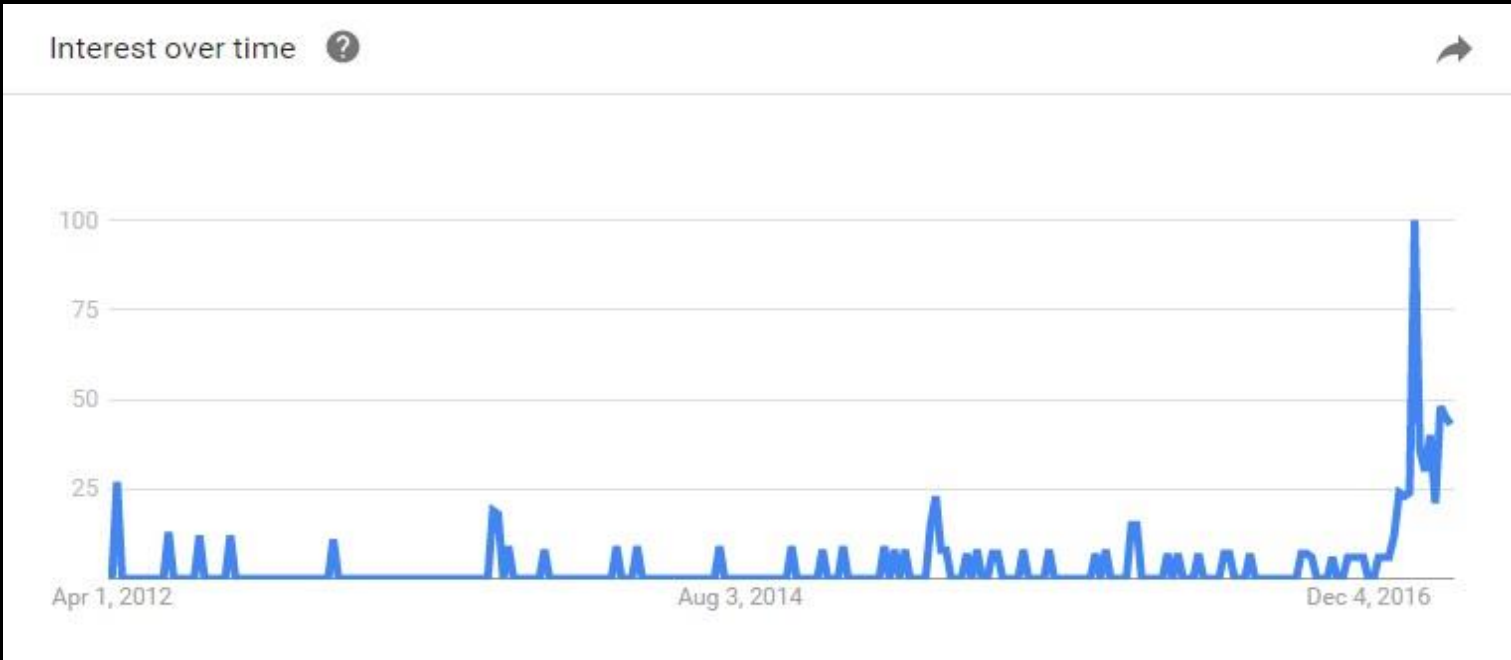
1. 현재 모습
2. 정의와 성격
3. 손쉬운 대책
4. 가족력
5. 또다른 대책



구글 트렌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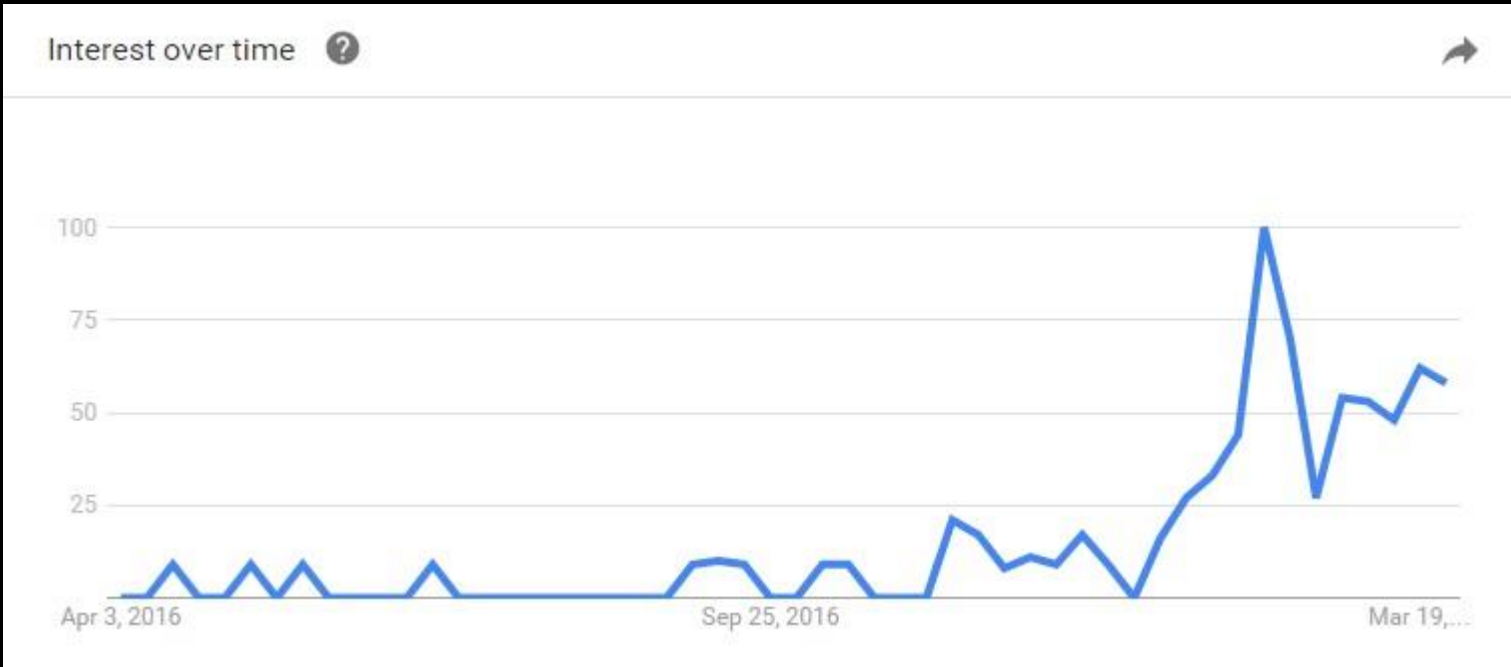
'fak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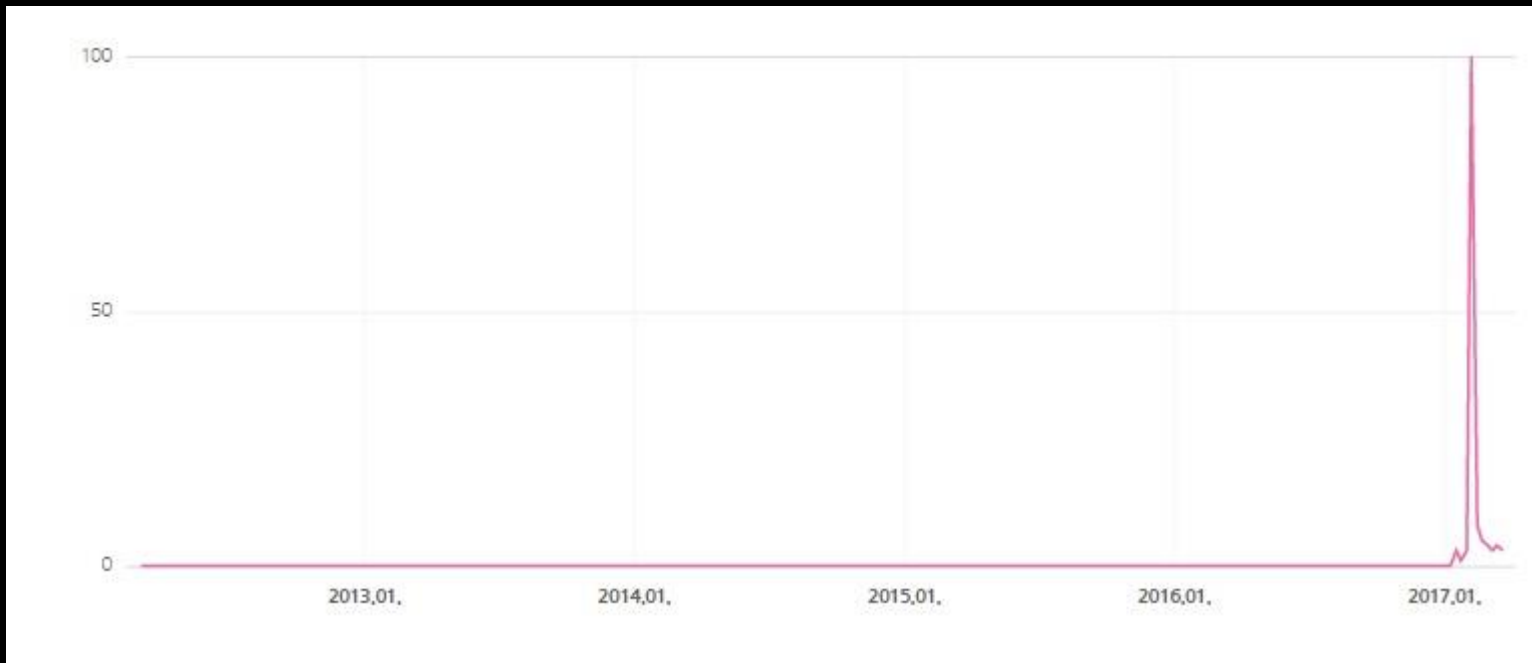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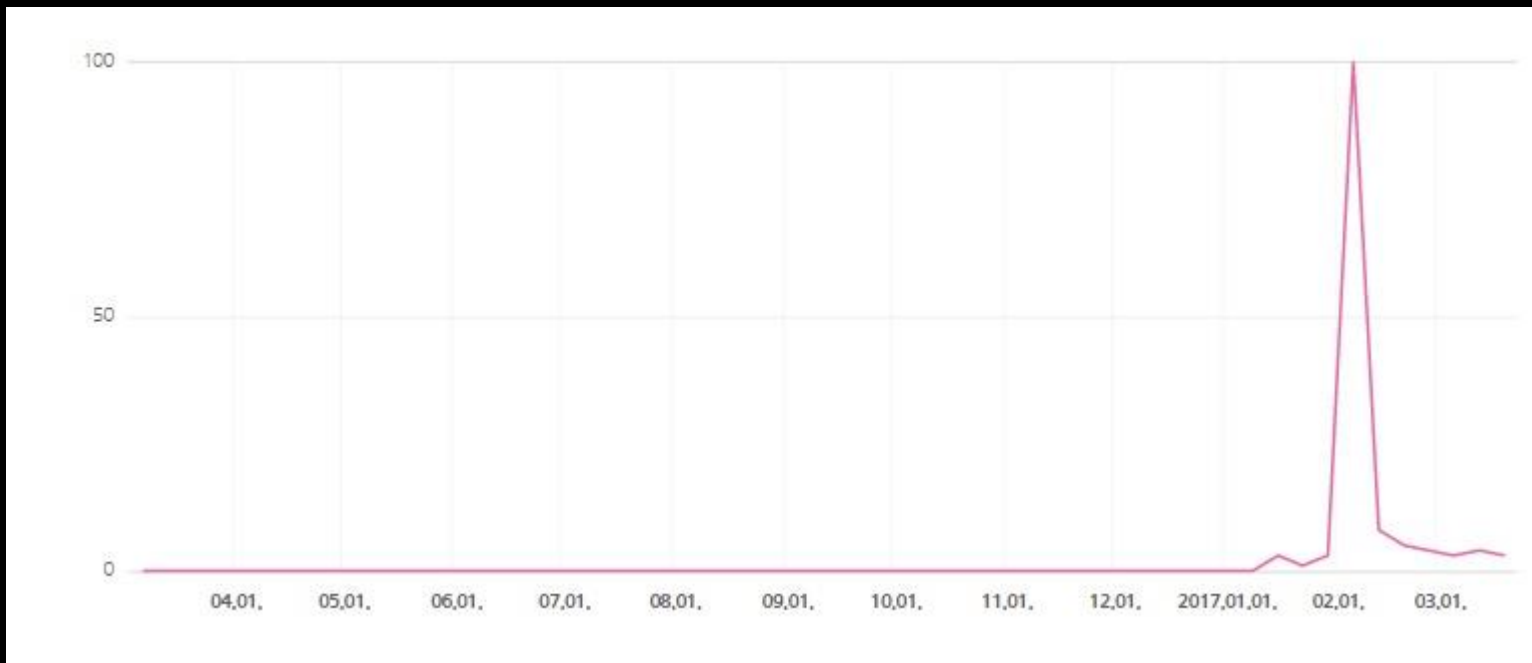
구글 트렌드: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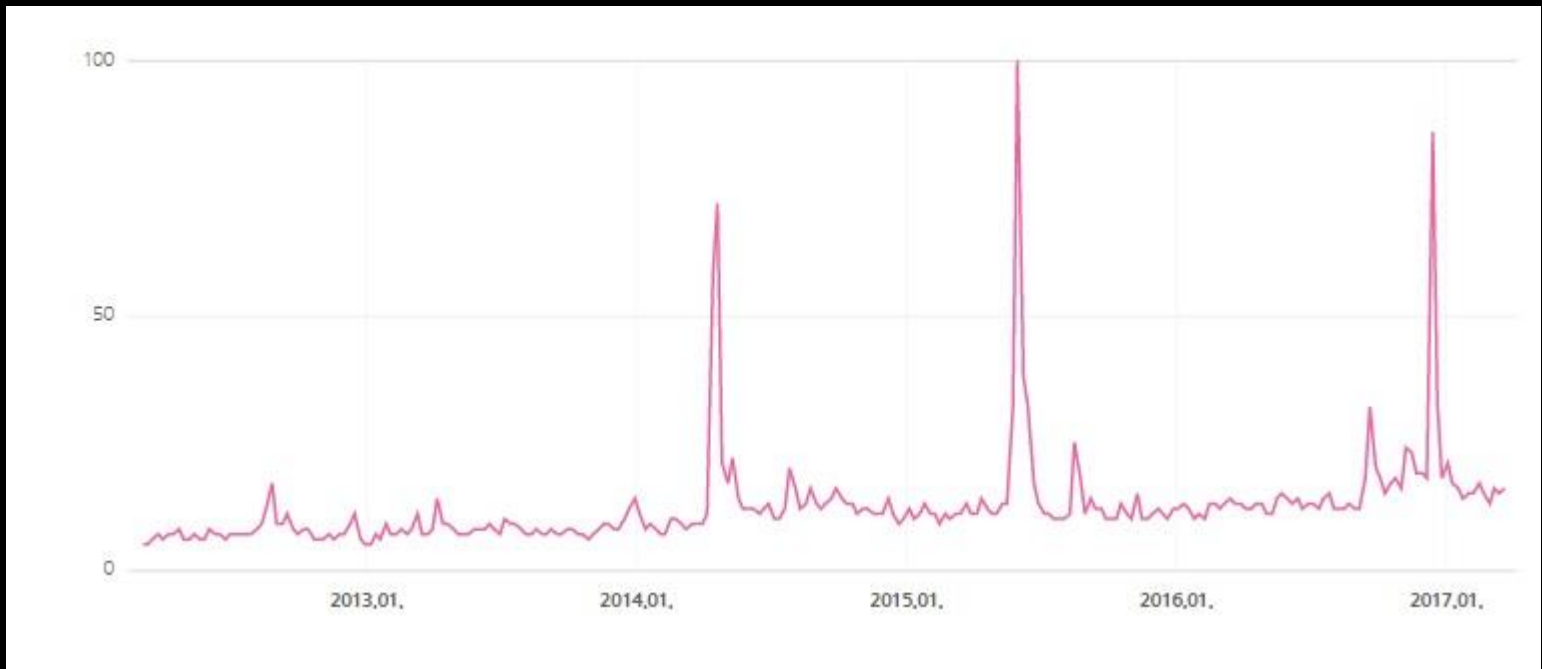
'가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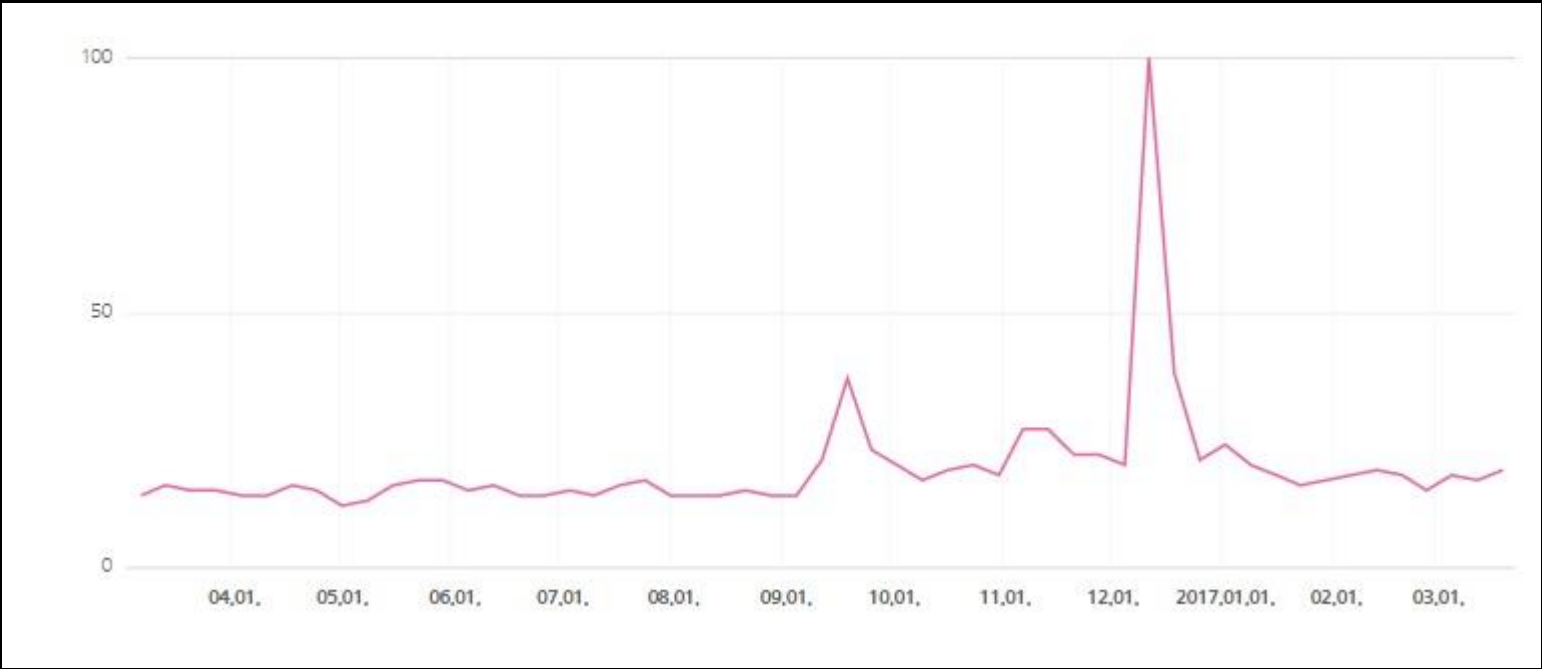


네이버 트렌드: 한국
'가짜뉴스' '가짜 뉴스'





네이버 트렌드: 한국
'유언비어'



허위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1. 선거
2. 언론 기사 형식
3. 의도적 생산
4. 인터넷

정의?

1.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2.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3.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4.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5. 허위정보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슬로우뉴스>

Aides Wrestle Drill From Trump's Hands As He Tries To Remove Obama Listening Device From Skull



WASHINGTON—Rushing toward the president as he pressed the eight-inch bit into his temple, several White House aides managed to wrestle a drill from Donald Trump's hand Monday while he attempted to remove Obama's listening device from his skull. "Obama implanted a microphone inside my head to record everything I say!" Trump reportedly shouted shortly before three White House staffers pinned him



<The Onion>

후진적 교육 현장 청와초교... 매일 아침 받아쓰기 시험

2013/05/30 · by dalnews1 · in 사회 · 댓글 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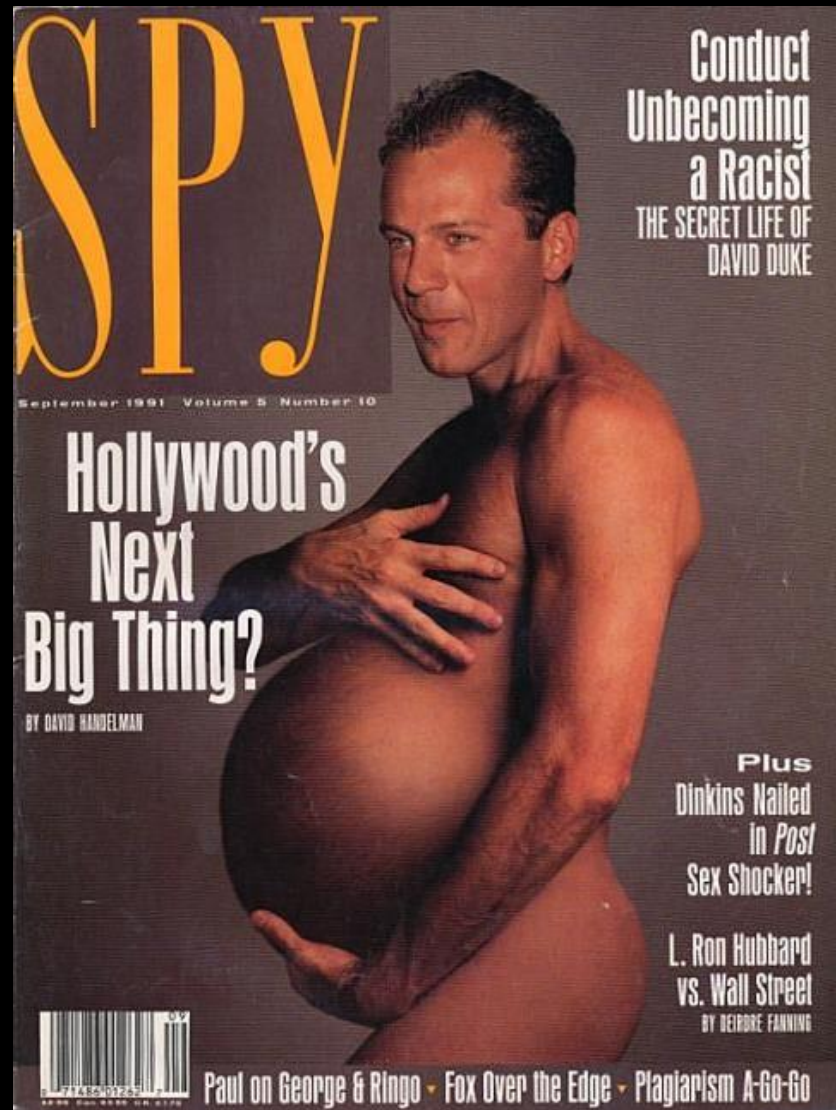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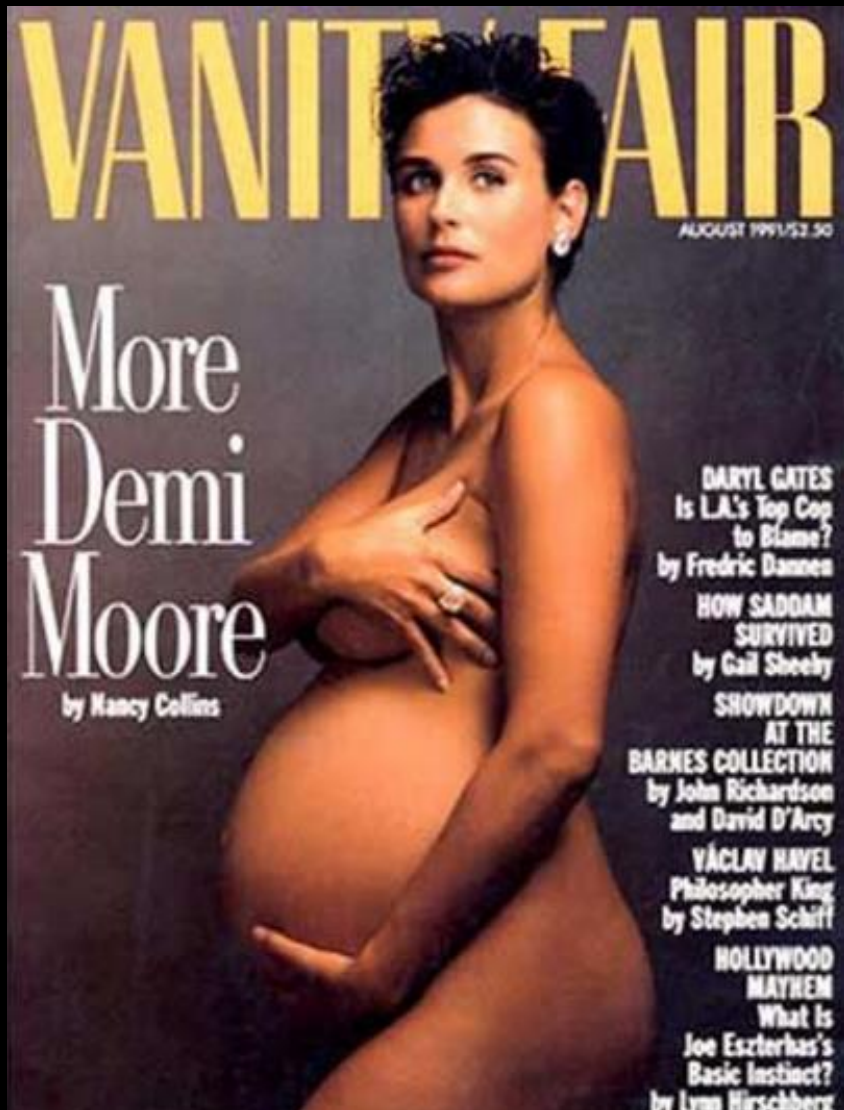
[서울=달뉴스] 과도한 시험을 되도록 줄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치중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극단적인 시험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매일 아침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받아쓰기 시험이 치러진다. 담임 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이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 적어야 하며, 빠뜨린 말의 숫자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열심히 받아적는다. 이를 밝히기를 거부한 한 장관 학생은 "선생님이 농담을 해도 받아 적어야 한다. 안 그러면 찍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받아쓰기 시험이 진행중인 청와초교. (사진 청와초교 출입기자단)



‘브루스 윌리스 테스트’

가장 손쉬운 대책:

국가의 법률적 규제

반기문, 의원들 만나 "가짜뉴스 규제 법 만들어달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 뉴스(페이크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후 진행했던 민생행보에서 구설에 오른 '턱받이', '퇴주잔' 논란들을 거론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 전 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위 페이크뉴스가 사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거짓말 같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 입법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1월 25일)

하지만...

- 형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 한국

1. 신뢰 잃은 언론
2. 정파적인 뉴스 소비
3. 비디지털 세대
4. 국가기관의 일탈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1. 신뢰 잃은 언론

한국 언론의 '악습 3종 세트':

- 관계자 저널리즘
- 전지적 기사시점
- 피동형 문장

+ 충격, 경악, 단독, 속보... ++ 종편 패널리즘

“리조트 주변 80cm 적설… 지붕 제설작업 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4-02-18 08:31:00 | 기사수정 2014-02-18 08:02:17

Like 0 Tweet 3 기사보내기

17일 오후 9시15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건물 추가붕괴 위험으로 수색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 등에 따르면 건물 잔해에 깔린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정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너진 강당 지붕을 들어올리기 위해 25톤 크레인 등 4대를 투입한 상태이며 경주시 공무원과 경북도특수구조대,해병대,해군 6전단,경찰 병력 1200여명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건물에는 부산외대 신입생 30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중 무너진 건물잔해에 100여명이 깔렸다 구조됐고 이중 5~10여명이 아직 잔해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가 난 건물은 일반 철재빔 대신 THK75 그라스 울 판넬과 16mm복층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외벽에 사용된 THK75 그라스 울 판넬은 수분 흡수력이 높아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건축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14일 폭설 이후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9년 9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후 4년여 동안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마우나리조트 강당 건물은 체육관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단층(1층) 1205㎡의 철골구조로 돼 있다.

경주시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매몰자 수색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건축물 구조 및 시공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적 재난으로 판명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난 리조트 인근에는 지난 7일후 약 80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뉴스1)

S. Korea roof collapse kills 10 at col

AP 12:11 a.m. EST February 18, 2014

Emergency staff worked through the night to pull people from beneath debris, twisted metal.



(Photo: By Yonhap, AFP/Getty Images)

STORY HIGHLIGHTS

- About 500 students had gathered for orientation at resort when collapse happened
- Recent heavy snow combined with rain likely put too much pressure on building
- Along with 10 dead, two were seriously hurt and 103 slightly hurt, officials said

SHARE 29 CONNECT TWEET 75 COMMENT 1 EMAIL MORE

SEOUL, South Korea (AP) — A resort auditorium's roof loaded down with snow and rain collapsed during a welcoming ceremony for South Korean university freshmen, killing 10 and injuring more than 100, officials said Tuesday.

Emergency staff worked through the night to pull people from beneath twisted metal and other debris and rush the injured on stretchers to waiting ambulances. Snow, sleet and icy roads hampered rescue operations.

The collapse happened Monday night. About 560 students fro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d gathered for a two-day freshman orientation at the Manua Ocean Resort in the southeastern city of Gyeongju when a crack appeared in the auditorium ceiling before the collapse.

Recent heavy snow combined with rain likely put too much pressure on the structure, said Kim In-you, a fire rescue squad team leader for the Busan Fire

Department.

Ten people died, two people were seriously injured and 103 lightly injured, said Jung Yoon-han, director of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ents had just finished dinner and were gathering for recreational activities at the time of the collapse, Byun Ki-chan, head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told reporters Tuesday. Some managed to escape after noticing a crack in the roof but others couldn't leave in time, he said.

Gyeongju is a historic city and popular tourist destination that served as the capital of one of the Korean Peninsula's ancient kingdoms.

Located at an altitude of about 500 meters (1,640 feet), the resort is at the foot of Dongdae Mountain, according to the resort's website. Weather officials said the area has received heavy snow over the last week.

SHARE 29 CONNECT TWEET 75 COMMENT 1 EMAIL MORE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2. 정파적인 뉴스 소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네?”

“뭘 보나, 경제를 살리자는데.”

- ‘나는 꼼수다’

선택적 노출 / 주목 / 지각 / 기억

디지털 환경 - 필터 버블, 공유형 뉴스 소비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3. 비디지털 세대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무지
산업화에 대한 향수, 민주적 경험 부재
강한 정치 의식 + 끈대 의식

60대 여성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니 감격스럽다"고 했다. 울음을 멈춘 그와 그의 동지들은 '애국시민 신참내기'로 보이는 최씨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정치인이고 언론사 사주들이고 다 김대중 때 북한 기쁨조랑 애를 낳고 와서 김정은 말을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18세 투표 금지?

2016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 중학생 중 82%가 광고와 뉴스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함.

우리편은 진짜 뉴스, 네편은 가짜 뉴스
(= 도널드 트럼프)

가짜 뉴스의 원조자들

4. 국가기관의 일탈

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가짜 뉴스의 천적:

1. 합리적 의심

→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2. 팩트 체크

→ 사실 검증 상례화 - 언론, 학계, 포털,
전문 웹사이트
다자 참여 모델



Trump Twists Jobs Numbers

March 16, 2017

President Donald Trump says his agenda is all about “jobs, jobs, jobs.” But at a rally in Nashville, and a speech earlier the same day in Detroit, Trump made several misleading claims about jobs, and the effect he has had on them since taking office.



Fact-checking Trump's TIME interview on truth and falsehoods



House gridlock stalls Trump's promise to repeal Obamacare



RSVP. Are you smarter than a fact-checker?



Fact-checking Trump as GOP health bill stalls

국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최소한의 법적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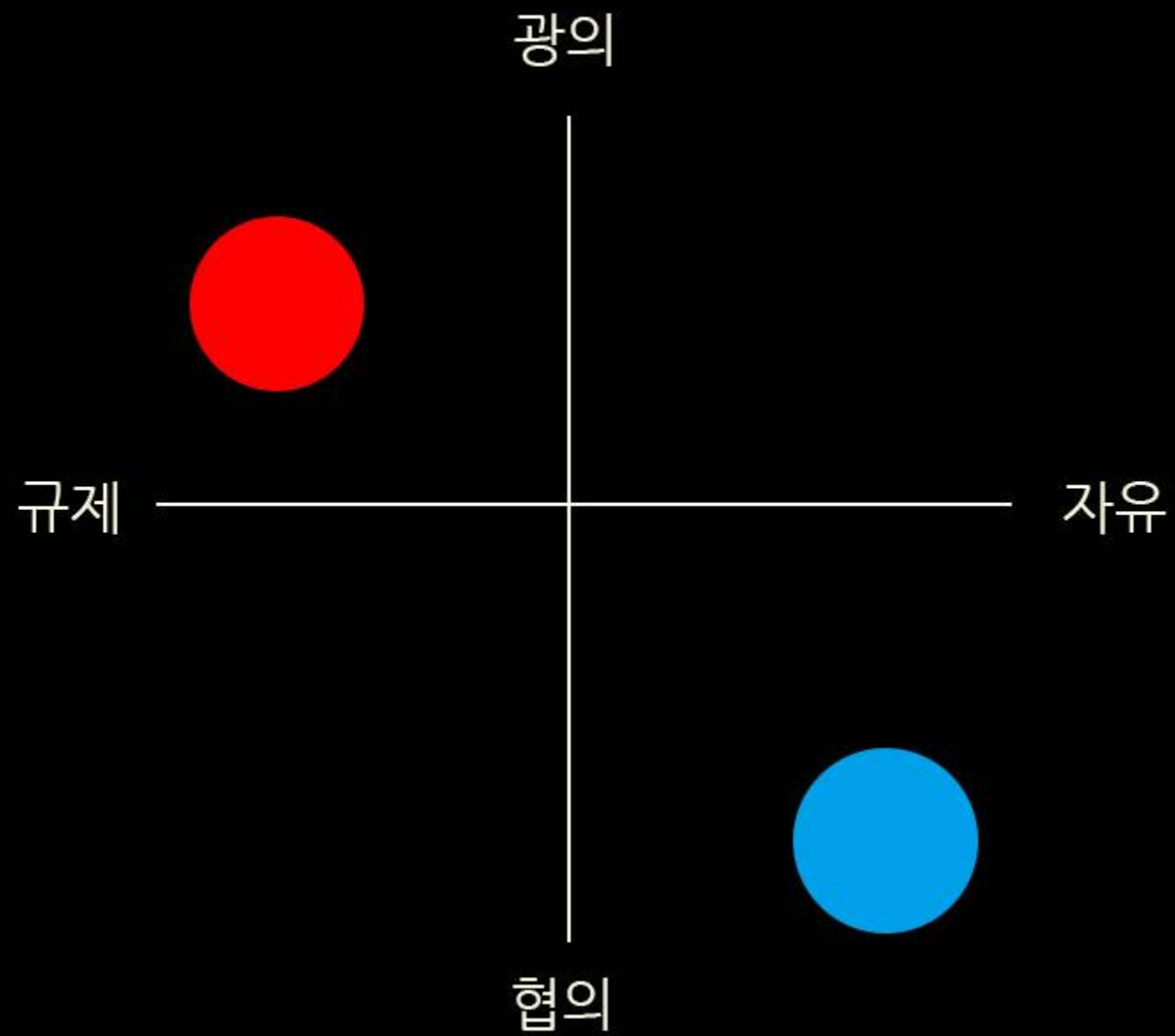
-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가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공정한 정보 유통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유연비어는 정보 통제를 먹고 산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위에서 존재한다는 인식

Cf. 독일은 규제한다는데?



“검열이 아니라 참으로 싸우라!”

“가짜 뉴스 문제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이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한다.”

– 에드워드 스노든

감사합니다!